



## 「2022년 지방직 9급 시험」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(6)

| 오현준 교수 | 박문각남부고시학원

### 17.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문제중심학습(problem-based learning) – 문제의 성격이 불분명한 비구조적 문제를 교수자가 사전에 제거할수록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.
- ② 토의법(discussion method) – 학습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학습구성원의 자발성, 창의성 및 미지에 대한 인내심을 요구한다.
- ③ 지그소모형(jigsaw model) – 협동학습 교수모형의 하나로 모집단이 전문가집단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 상호의존성과 협동성을 유발하게 된다.
- ④ 발견학습(discovery learning) –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견과정을 촉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, 학습자는 가설 검증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주체가 된다.

정답	①
해설	문제중심학습(problem based learning)은 구성주의 인식론에 토대를 둔 학습형태의 하나로, ‘문제로 시작하는 수업’이라고 할 수 있다. 여기서 문제란 정답이 분명하고, 지식 간의 관련성이 적고 단편적이며 학습자의 맥락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. 문제 중심 학습에서는 현실 속에서 지식이 학습자와 서로 복잡하게 얹혀 존재하는 비구조화된 문제(unstructured), 즉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실제 문제를 다룬다.

### 18. 실존주의 교육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나–너’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.
- ② 불안, 초조, 위기, 각성, 모험 등의 개념에 주목한다.
- ③ 부버(Buber), 볼르노(Bolzono)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.
- ④ 의도적인 사전 계획과 지속적인 훈련을 강조한다.

정답	④
해설	실존주의는 1·2차 세계대전과 후기산업사회의 비인간화 등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주체성 회복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강조하는 철학이다. 현대문명의 비인간화를 초래한 원인을 이성을 절대화하는 관념론과 인간을 객체화하는 실증주의에 두기 때문에 ‘체계성·전체성·일반성·보편성·평균성’(본질)을 부정하고 자율적(주체적)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한다. ④는 우연적·무의도적 교육을 강조한다.

### 19.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확보·배분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
④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.

정답	②
해설	<p>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(시·도교육청)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다.</p> <p>시·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원(시·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)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국고보조금, 지방자치단체(시·도)로부터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.</p> <p>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다. 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포함된다.</p> <p>①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조(목적), ②는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제1항, ③은 제9조(예산 계상) 제1항, ④는 제3조(교부금의 종류와 재원) 제1항에 해당한다.</p>

### 20.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평등의 관점은?

- 단지 취학의 평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
-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향한 목적이다.
- 시설, 교사의 자질,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에 차이가 없어야 교육평등이 실현된다.

- ①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
- ②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
- ③ 교육조건의 평등
- ④ 교육결과의 평등

정답	③
해설	<p>교육조건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‘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’을 의미한다.</p> <p>즉 학교의 시설, 교사의 자질, 교육과정, 학생의 수준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이라는 것이다.</p> <p>왜냐하면 학교 간의 차이는 그 자체로 문제이려니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 이에 적합한 정책 사례는 1974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해당한다.</p>